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가분가분 : 말이나 행동 따위가 매우 가벼운 모양. 가분가분히.
'마치 전설 속에 나오는 공주의 걸음걸이와도 같이 가분가분 걸어오는 눈이었다.' (정비석<비석과 금강산의 대화>)

가탈걸음 : 말이 불안정하게 비틀거리며 걷는 걸음.
아버지가 "그 말 잘 가더냐?"하고 묻기에 우길이는 "그놈의 말 가탈걸음만 치고 틀렸어"하니까…(한설야<탑>)

가다귀 : 참나무 따위의 잔가지로 된 땔나무. '마른 가다귀로 불을 지피니 불이 금방 붙 었다.'

촌닭 : 좀 어수룩해 보이는 시골 사람이 큰 도시에 오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게 된다. 그 모습이 마치 시골 닭이 기웃거리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촌스럽고 어수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촌닭'이라고 한다.

숙제 : 원래 옛날 서당에서 시회를 열기 며칠 전에 미리 내준 시나 글의 제목. 그런데 서당이 없어지고 학교가 생겼으니,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물을 숙제라고 하게 된 것. 그것 말고도 두고두고 생각해 볼 문제 거리를 숙제라고도 한다.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주체적인 삶 살고자 한 노라에 박수를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입센作 '인형의 집'

만약 여러분에게 인형의 삶을 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아내이자 어머니일 뿐일까요? <인형의 집> 주인공 노라는 아내이자 어머니이기 전에 자신은 떳떳한 인간, 온전한 인격을 가진 인간이란 걸 자각하게 되지요. 인간으로 주체적 삶을 살아가고자 한 노라를 만나며 노라에게 박수를 보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여러분은 어떨지요? 여성 남성 이전에 한 인간으로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입센은 노르웨이가 자랑하는 19세기 극작가로 <인형의 집>은 1879년 독일에서 쓰여 진 3막극으로 입센의 희곡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죠.

중심 테마는 노라의 가출 여성 해방 대담하게 다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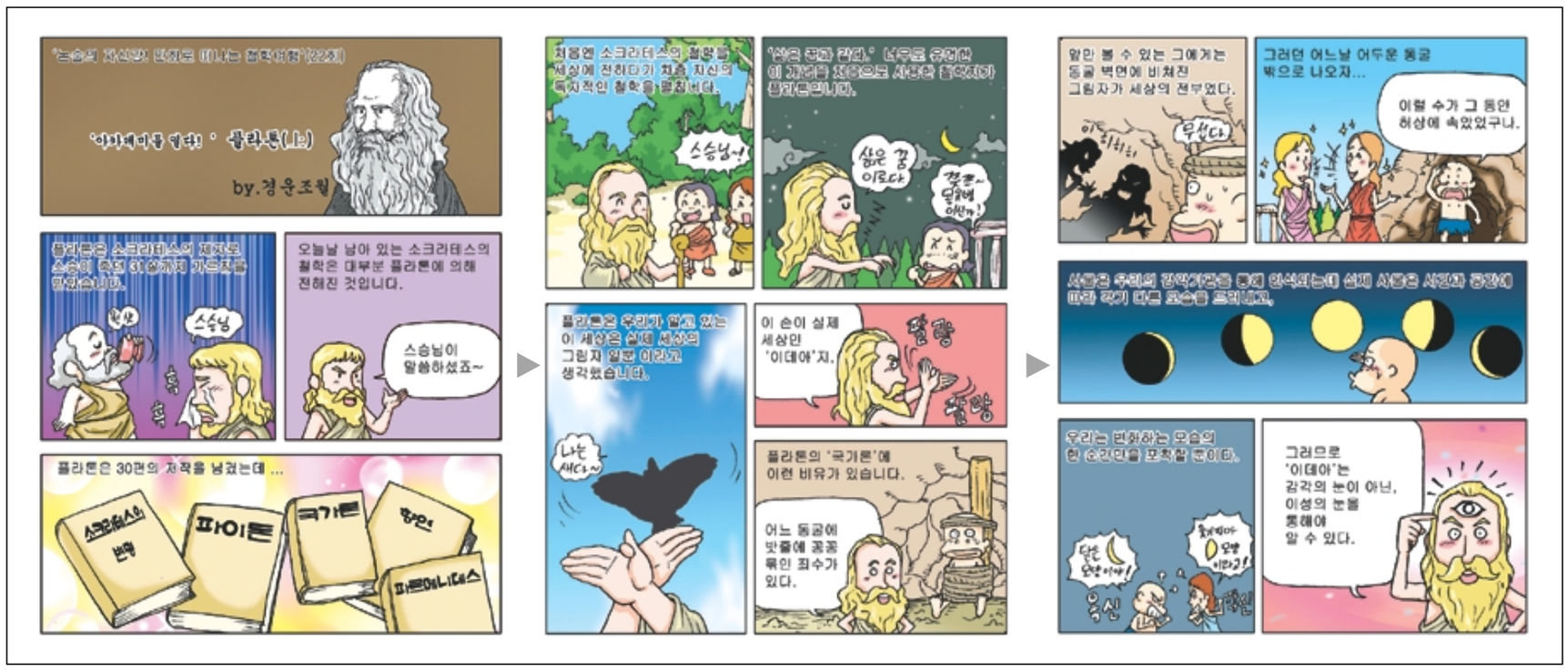
변호사 헬메르의 아내 노라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남편은 새해에 은행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노라는 이미 아이가 넷이나 되면서도 아직 아이의 티를 벗어나지 못하여 남편으로부터 항상 <귀여운 종달새>라고 놀림을 받는다. 그러나 노라에게도 크나큰 비밀이 있었다. 신혼 당시 남편이 결핵으로 전지요양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노라는 남편 몰래 돈을 빌렸는데, 그것은 당시 병상에 누워있던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하여 얻은 것이었다. 그 후 노라는 내직을 하기도 하고, 남몰래 돈을 모으기도 하여 이자와 원금을 갚아 가는 데 쫓기고 있었다. 노라는 남편에게서 용돈을 많이 얻어 내 그것으로 빚을 갚아 나가고 나중에 남편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줄 작정이었다. 한편 고리대금업자인 크로그스타는 남편과 같은 은행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남편 헬메르는 은행장 취임을 계기로 그를 해임하려고 하지만, 크로그스타는 노라의 위조 서명을 문제 삼아 오히려 남편을 실직시키겠다고 노라를 위협한다. 결국 이를 알게 된 헬메르는 노라를 심하게 꾸짖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만을 두려워하여, 사회적 체면 지키기에만 급급해 한다. 노라는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 책임을 져주기를 기대했지만, 남편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여서 노라의 법적, 도덕적 책임을 추궁할 뿐 아니라, 도리어 사회의 관례에 준하는 사건으로 취급하려고 들었다. 한편, 아이들의 교육을 그런 여자에게 맡길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건은 반전되어 크로그스타가 차용증서를 되돌려 줌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헬메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지만, 이미 남편의 이중성에 분노와 염증을 느낀 노라는 아내가 되기 이전에 책임 있는 한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한다.

노라는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사랑하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있어서는 외견상의 사회적 지위나 그 체제가 더 중요했으므로 두 사람의 의견은 크게 벌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노라는, 그녀가 생각하고 있던 애정과 부부 생활에 대한 모든 구속을 떨쳐 버리고 남편과 아이들을 남기고 집을 나간다. 인간이 아닌 귀여운 인형으로만 보는 남성들과 기존 사회의 편견에 도전하려는 것이다.

<인형의 집>은 19세기 후반에 많이 논의된 여성해방문제의 영향 아래 만들어졌어요. 이 희곡의 중심 테마는 노라의 가출이지요. <인형의 집>은 아내이고 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겠다고 부르짖는 새로운 유형의 여성 노라의 인간적 각성 과정을 그려 내고 있지요. 가정에서 억눌려 있던 여성들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했을 것 같지요. 여성 해방의 문제를 대담하게 다루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니까요.

남편과 자식을 버리는 그녀의 결심은 헬메르가 크로그스타에게서 온 두 통의 편지를 읽을 때 굳혀지지요.

노라는 부모 밑에서는 어린이 인형, 남편 밑에서는 아내 인형이라는 데 견디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기 자신과 외부 세계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며, 남편과 자녀에 대한 의무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가 우선한다고 생각하지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친구가 가출 했어요.

저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가출을 했어요. 저와 친했는데 아무 말도 없이 가출하다니….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D:걱정이에요)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려는 태도가 필요

친구가 집을 나가서 우리 친구도 충격이 클 거예요. 나름대로 친한 친구라 속마음을 나누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서 연락도 없으니 말이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해요. 하지만 먼저 그 친구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혼자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집을 나갈 생각을 했을까요? 청소년 여러분은 종종 자기의 내부세계에 몰입하여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끊거나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린답니다. 말을 하지 않거나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전혀 알 수 없을 때가 있죠.
대부분의 경우에 가출한 청소년들은 가족보다는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연락이 오면, 그 동안 친구 심정을 솔직히 털어놓되, 섭섭한 마음보다는 친구를 걱정하고 있는 마음을 거짓 없이 전달하도록 하세요. 그러고 나서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집으로 돌아올 것을 권고해야 합니다. 어디 있느냐는 말이나 거기서 뭘 하느냐는 말보다는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과, 무엇보다 우리 친구가 그 친구를 아주 많이 기다리고 있고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가 돌아오면 이제부터는 그쪽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도록 하세요. 무슨 일이건 자기 탓을 하고,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지도 몰라요.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우리 친구, 무엇보다 그 친구와 함께 마음을 솔직히 나누려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가에 대해서 이 기회에 다시금 짚어보는 것도 좋겠어요. (전국청소년사이버상담실)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